



함께 나누는 세상

◀32

장애인에게 전인재활을 교육하는 곳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

문 명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회이다. 그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일단 대문 밖을 나서면 온통 주변환경은 일반인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횡단보도 한번 건너기도 만만치 않고, 지하철이라도 한번 타려면 무수히 이어지는 계단과 배려되지 못한 지하구조 등...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단지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걸음 한 발짝 움직이기도, 물건 하나 사기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편견과 육체적 장애에 맞서 전인재활을 교육하는 곳을 만날 수 있기에

이들에게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

’82년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 장애인 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재)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그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장애인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복지관에서는 장애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장애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주어진 역할과 그 몫에 합당한 책



▲ 작업현장 방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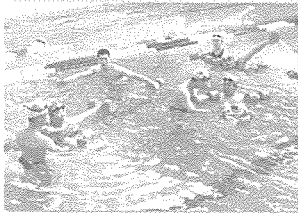
임을 해 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이곳에서는 우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한다. 즉 상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거쳐 장애의 원인과 유형, 정도 등을 체크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장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전인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보장구 처방 및 장착훈련에서부터 각종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지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재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 수중 재활 치료

또 직업평가를 통해 파악된 개인의 적성과 가능한 직업 정도에 따라 생산적인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은 실제로 생산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지도교사가 정기적으로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의 환경적응 여부와 직업 진전여부를 관리한다.

즉 장애인들도 충분히 교육 받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 심리재활교육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고 있어 재활의 동기를 견고히 해 주고 여러 환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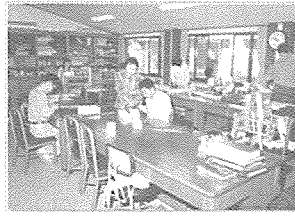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다.

모든 치료비용은 의료보험 부담금보다 저렴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치료비용이 면제 된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재가 장애인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 등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의식계몽을 위한 각종 팸플릿, 교육용 비디오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올바른 홍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 직업 훈련

수 있는 수영장을 개장해 장애인 시설에서 일반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허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료의 진전을 보이는 환자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을 대할 때가 가장 보람이라는 복지관 홍보담당 송근창씨.

그가 전하는 한마디는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기피하는 유형, 둘째는 무관심, 셋째는 과잉 친절이죠. 장애인들은 그저

자신들을 평범한 이웃으로 봐 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소외와 외로움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잉친절이 재활의 의지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와 드릴까요?’”

* 장애인을 배려하는 작은 친절 하나

- 청각장애인과 대화 시에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되도록 입 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한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은 구화(口話)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시각장애인과 식사 시에는 미리 시계방향으로 음식의 내용물을 설명해 준다.

- 휠체어장애인과 대화 시에는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한다. 72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전 화 : (02)441 - 6092

지로번호 : 7527162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17-24

상담 및 진단 예약 전화 :

(02) 441-0030

(재활전화상담실)